

시: 1995년 5월 일(토)



안녕하십니까? 방역과장 이덕형입니다.*

특집 대한에이즈협회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1

향후 에이즈 관리에 대한 정부의 방침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서도 안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덕형 /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안녕하십니까? 방역과장 이덕형입니다. 사실 대한에이즈협회에서의 적절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에이즈에 대해서는 나쁜 소식들이 많았고, 제가 그 나쁜 소식의 주무과장인 셈이어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관리의 개선 방안"이라고 할 때 일부는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제 다음에 말씀해 주실 분들의 의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그 후에 주실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효과성 판단이나 가치판단을 통해 잘 반영

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력의 목적

지난 4월말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에이즈 감염자 수는 443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3~4배가 실제 감염자 수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에이즈의 희생자’, ‘고통을 받는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력하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PERSON LIVING WITH HIV’, HIV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처럼 보다 삶을 강조하고 생산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말들이 어떻까요.

에이즈 관리는, 좀 더 표현을 좋게 하자면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력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에이즈 감염의 확산,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감염된 사람 또는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유병을 감소시키고, 또한 에이즈 감염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기여할 수 있도록 주스려 주는 것이 우리 에이즈 예방 노력의 실행적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에이즈 예방 활동

실질적으로 정부는 1985년 이후에 광범위하게 에이즈 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이를 위한 정보가 확산되어 있고, 혈액 안전을 위한 검사 체계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염자 관리에 대해 제 다음으로 여러 지적,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보건교육, 상담이 되어지고 있고, 국립보건원에서 번역기능검사, 그리고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종의 전파 방지라는 명분으로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서비스적 차원이라고 할까요. 의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발병억제제 AZT를 공급한다든지 에이즈와 관련된 진료시에 진료비를 상환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더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

앞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성이 더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가 교육, 홍보, 정보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홍보물, 정보의 대부분은 유실되고, 그중의 일부도 이 자리에 계신분들처럼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선까지만 정보가 가 있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공중에 던지는 식의 정보확산보다 강의실에서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1대1 상담을 통한 궁극적인 행태교정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에이즈 예방의 노력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개된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치게 정부가 주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다시 정부가 안고 있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한에이즈협회를 비롯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짧은 장래 중에 이러한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력의 주도적 역할들이 상당히 분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담보다는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정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 자체에 무리가 있었고,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양면성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자체의 관리보다는 사람의 관리쪽으로 가는 경우가 전통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에이즈 예방법에도 “감염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에이즈예방법에서 정한 외의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양면성, 꼭 이러한 선언적인 측면 전문적인 판단으로만 정책화되지 않고 예를들어 “에이즈 감염자를 격리하고 국가에서 강력하게 전파를 차단하는 물리적인 노력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들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고 그러한 부분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양면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에이즈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에이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건강상태에 대한 차별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임질성 안질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 사람의 눈만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나, 부모의 죄냐 아니면 본인이 잘못해서 걸린 것이냐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때 답은 이 질병은 죄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2천년 전에 질병과 죄는 관계가 없다는 선언이 있었고,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은 서구와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 인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질병에 대한 차별이 상당한 수준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질병이라고 하면 전염병이 대표적이었고 그에 대한 인류의 가장 손쉬운 대처방법은 격리였습니다. 우리가 화학요법이 발전하고 소위 전염병이 치료가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단무의식 안에는 병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격리를 해야한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있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공중보건에서 소위 질병의, 전염병의 외부효과적 측면을 얘기하고 따라서 전염

병 관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그러한 방안을 이룰때면 과학의 논리로 얘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에이즈 뿐만 아니라 B형 간염 보균자들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에이즈에 이르러서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양면성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향후 에이즈 관리에 대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본학회 최강원 부회장

▲ 조사 중인 유성희 대한의학협회장

"PERSON LIVING WITH HIV"

UNDP 책자에 참고될 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장애를 접근할 때 이를 테면 과거의 병신에서 장애자,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하죠. 이런식으로 언어가 사람의 인식을 고정시키는 측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언어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와 저들, 우리는 깨끗하고 건전하고 저들은 뭔가 잘못했고 더럽고 질병을 안고 있고 위험계층이니 하는, 이러한 심리를 부추기는 말, 표현들을 쓰지 않아야겠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평화라거나 인간의 정상적인 발전, 개발 이런 이를 테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의 용어가 아니라 투쟁적인 용어, 에이즈와의 전쟁, 에이즈 감시, 에이즈 추방을 위한 운동본부 등의 소위 말하는 군사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세번째로는 사실 질병은 가치중립적

입니다만 에이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치가 많이 개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의 희생자, 고통을 받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무력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또 다른 예로서는 혈우병이라든지 에이즈와 같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의학적인 상태로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거라든지요. 이런 부분보다는 보다 삶을 강조하고 생산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말이 어떨까요. 영어로도 초기 용어와는 달리 "PERSON WITH HIV", "PERSON LIVING WITH HIV", HIV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면서 이런 말을 우리 표현으로 적당하게 바꿀 수 없을까 생각해 봤지만 제 머리 속에서는 퍼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적당한 표현이 없는가, 적당한 표현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수용할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번째로는 용어를 엄정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에이즈 환자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적돼야 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

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서도 안되고 평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방침 중에 그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그리고 그 효과가 심히 의심되는 부분, 단지 전시적이고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마지못해 절충적으로 해나가는 부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제 다음 분들을 통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러한 지적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A

에이즈 관리에 대한 시민의 입장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에이즈는 예방할 수 있는 거라는 데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감염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정광모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빨간 간색이라는 것은 늘 상대방에게 주의, 경고 뭐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신호에 빨간 게 떨어지면 서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법원에서 차압을 당할 때 빨간딱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군인을 나갈 때 소집명장도 빨간딱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적십자의 뜻도 있습니다. 결사대

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세상 조심하면서 살고 남에게 조심을 준다, 자기도 결사대의 뜻으로 좋은 일도 하고 남에게 좋은 일도 강요한다, 뭐 이런 빨간색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정광모 보실 적에는 그 빨간 옷도리 일 잘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에이즈라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냐.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염자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느냐, 어차피 사형선고는 받은 거다. 그런데 그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고독하게 투병하지 않도록 해주